철옹성 균열 보인 호남… 민주당 독주에 경고등 켰다

6·3 지방선거 결산

〈4.완〉 호남정치의 과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5곳서 비민주계 당선… 텃밭 무색
광역 중대선거구제 손질 필요… 대안세력 입성은 호재
"야권 경쟁력 확보·의회 상호 견제 기능 강화 등 과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호남의 민심은 더불어민주당만을 바라보지 않았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남광주에서 압승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철옹성 같은 성벽에 균열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이었지만 호남은 높은 국정운영 평가에도 민주당에 채찍질을 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5개 구청장,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싹쓸이했지만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상황이 달랐다.

22개 시·군 중 5곳에서 비(非)민주계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강진 강진원·광양 박성현·완도 김신 후보는 무소속 당선됐고, 장흥과 신안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 사문순·김태성 후보가 나란히 당선을 확정 지었다. 진도와 함평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김희수·조국혁신당 이윤행 후보간 초박빙 접전 끝에 민주당 후보가 진땀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공천 불신과 일당독점에 대한 견제가 드러난 것이라 입을 모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광주 선거에선 대승을 거둔 반면, 전남에선 경선 잡음과 불공정 논란을 비민주당 후보들이 파고들며 지지세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가에도 통합특별시와 통합의회 출범과 맞물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투표 당선 속출과 저조한 투표율은 경쟁이 실종된 호남 정치 지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찍으나 마나 결과는 똑같다"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치 역동성 향상이란 과제를 남긴 셈이다.

실제 광주 구청장 5명 중 2명이 무투표 당선되며 투표율 하락을 부채질했고, 전남은 비민주당 후보가 바람을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65.7%로 투표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범 도입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도 엇갈린 평을 남겼다.

광주 남구 1선거구와 북구 1·2선거구, 광산구 3선거구 등 4개 중대선거구에서 13명을 선출했는데, 진보당 후보 2명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동안 소수정당이 광주에서 지역구 광역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점을 비춰볼 땐 소기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여전히 민주당 후보 11명(85%)이 당선증을 거머쥐면서 '무늬만 다당제'란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이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분전을 펼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민주당의 대안세력을 바라는 민심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정가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견고했던 민주당의 지지도에 틈새가 생기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이며,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틈새를 파고들 경쟁력을 기르는 게 과제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라고 찍어주는 시대는 지났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로 진출한 만큼 지역 정치의 건강한 상호 견제 체제가 갖춰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주당과 혁신당, 연대·통합 강화해야"

광주 방문… 민주 정부 5기 창출 과정서 역할 강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정부 5기 창출을 위해 범민주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복권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주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제가 당을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긴 호흡으로 전국을 돌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는 그만뒀지만 제가 해야 할 독자적 역할은 있는 것 같다"며 "평택에서 총 11번의 낙선 인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평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응원해 주셨던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년 뒤 총선과 4년 뒤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민주 정부 5기를 창출해야 하는데 집권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부 상황도 좋지 않다"며 "범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만큼은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했지만 크게 보면 같은 진영"이라며 "연대와 통합의 정치를 강화해야 2028년도 이기고, 2030년도 민주 정부 5기가 창출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 내부, 혁신당과 민주당 모두가 일단 연대와 통합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위기 도민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효과 톡톡

복지사각지대 해소… 9월 22개 전 시군 확대

전남도는 위기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 7개월 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9월부터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생필품 3~5개, 1인당 2만원 상당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첫 방문 때 본인 확인을 하고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뒤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즉시 물품을 받는다. 두 번째 방문 때는 기본 상담을 거쳐 물품을 받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상담으로 연계된다.

세 번째 이용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상담을 마친 뒤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능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7개 시군 58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7013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기본상담 1541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279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도왔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참여 시군을 7개에서 14개로, 사업장을 58개에서 109개로 늘렸다. 또 광역·기초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9월부터는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가까운 사업장에서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사업장 운영 관리를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냥드림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도록 마련한 복지안전망 사업"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적극 발굴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광주문화신협

평생 어부바 신협

자산 규모 1조 6천 5백억원
창립 이후 33년 연속 흑자경영
당기순이익 10% 이상 지역사회 환원

26.03.기준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운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합니다.

고교2학년 ~ 대학졸업까지
6년간 장학금 지원!

15년간 총 누적 장학생 235명
총 누적 지급액 2,430백만원

26.03.기준

광주문화신협 소상공인 지원
어부바플랜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결연업체 혜택

☑ 업장 환경 개선
☑ 필요물품 지원
☑ 금융상담 및 대출

2022년~현재 결연업체 673곳

광주문화신협 & 광주북구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광주광역시 시청과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완료

보탬e카드

광주문화신협은 2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상황실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조사업자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보조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본점 | 여신사업부 | 문흥지점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림지점 | 동광주지점 | 각화지점

대표번호 1644-7990